

## 소련의 핵발전소 사고에도 불구 사료 곡물 안정세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 미산 옥수수시세 약세

최근 미산 옥수수시세는 여러가지 약세요인들 로인해 C&F 110~115불 수준에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하락요인중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4월 9일 미국이 EC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데에 대한 보복조치로 위원회가 미국 농산물에 대해 수입제한을 발표한 것을 들 수 있다. 수입제한 대상품목은 소맥, 대두박, 콘쿠르, 텐피드 등으로 미산 옥수수시세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뿐만아니라 캐나다 정부에서 4월 9일부로 86/87년도 캐나다 곡물의 수출 기본가격 (Initial Price)을 인하한 것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캐나다 곡물의 수출기본가격 (Initial Price)은 미산 곡물의 론·레이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하내역을 보면 소맥이 130불로 30불, 대맥이 80불로 30불, 귀리는 75불로 25불씩 각각 하향조정 되었다.

이와같은 요인들과 함께 최근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남아프리카산 옥수수들과의 수출경쟁에 밀려 미산 옥수수의 수출실적이 저조하고 앞으로의 수출전망 또한 밝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 ● 콘벨트 옥수수식부 호조

금년도 미국 콘벨트지역의 옥수수 식부작업은 이미 남부지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 남부지역의 옥수수 식부상황은 상당히 빠른 수준이다. 그러나 서부지역은 아직 식부에 들어

가지는 않고 있으나 식부조직원 토양수분상태는 대단히 양호한 실정이다. 즉 중앙부지역의 토양수분이 예년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고, 동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서부는 약간 많은 상태이다.

4월 13일 현재 미국 콘벨트지역의 옥수수 식부상황을 보면 조지아주 80%(과거평균 70%), 노스캐롤라이나 40%(과거평균 32%), 텍사스 74%(과거 55%), 미조리 14%(과거평균 5%), 켄터키 20%(과거평균 4%), 일리노이 2%(과거평균 0%), 인디아 3%(과거평균 0%), 오하이오 1%(과거평균 0%)등으로 미국 콘벨트지역의 주요 17개주평균 식부진행율은 5%로 과거평균 3%를 다소 앞서고 있다.

### ● 아르헨티나산 옥수수시세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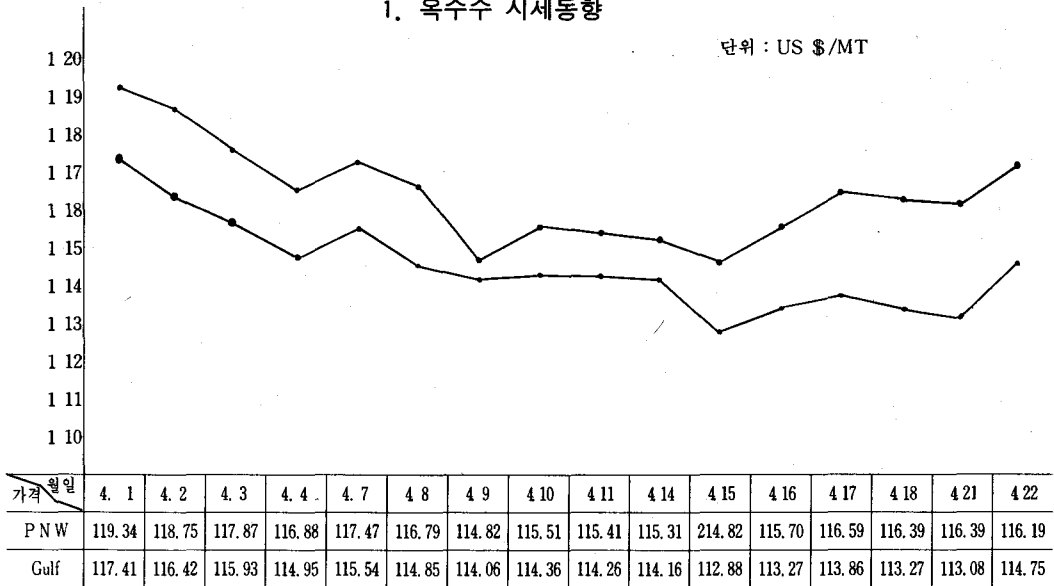
미산 옥수수시세의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산 옥수수시세는 소련의 100만톤 구매설과 관련하여 C&F 108불 수준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소련의 아르헨티나산 옥수수구매취소로 인해 C&F 102불까지 급락하였다. 그러나 최근 다시 브라질의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70만톤 구매가능성으로인해 반등현상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의 70만톤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아르헨티나산 옥수수시세는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 ● 케냐에서도 옥수수 수출시사

또한 남아공산 옥수수시세 역시 하락세를 나

### 1. 옥수수 시세동향

단위 : US \$/MT



타내고 있는데 금년도 남아공의 옥수수생산량은 현지 생산자단체인 NAMPO의 추정에 따르면 820만톤으로 지난번의 한발피해로 우려했던 800만톤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또한 4월 10일 발표된 미농무성의 금년도 남아공의 옥수수생산추정량을 보면 850만톤으로 지난해 생산량인 780만톤을 9% 상회하고 있다. 이때문에 금년도 남아공의 옥수수 수출여력은 90만톤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6월 선적분 옥수수 수출계획량이 25만 2천톤에 달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 옥수수의 수출조건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남아공 통화(Rand)가치의 약세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일본 종합상사와 한국 옥수수가공협회에 의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아공산 옥수수는 태국산 옥수수에 비해 전분함량이 높아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옥수수 수출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한국사료협회에 삼성종합상사를 통해 제시된 케냐산 옥수수 수출가격은 C&F기준 100불미만이 되고 있다. 케냐정부에 따르면 금년도 케냐의 옥수

수 생산량은 100만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며 수출가능물량은 10~2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 ● 타피오카, 루핀시드 경쟁력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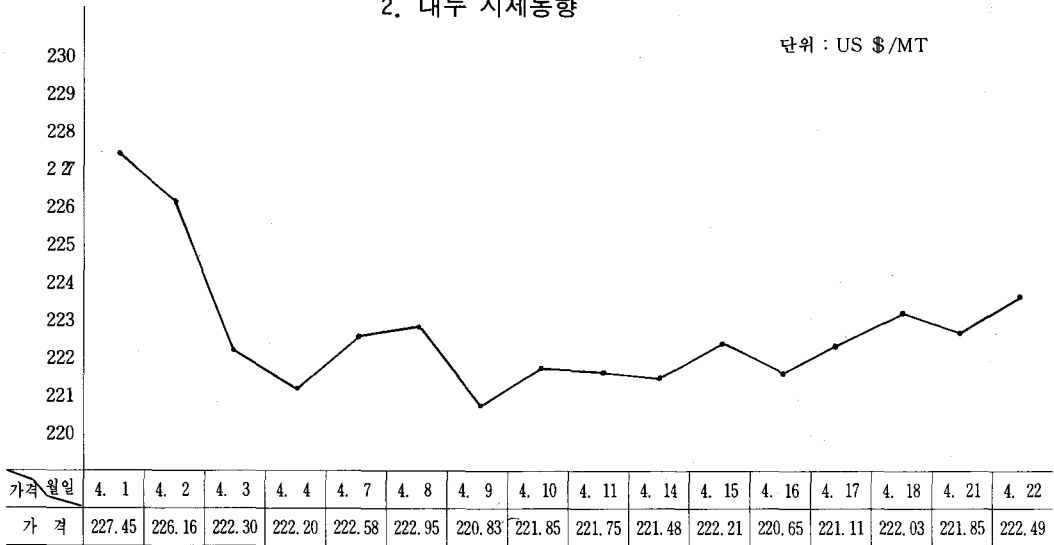
금년 상반기에 들어서면서 강세현상을 보여왔던 기타곡물시세는 이제 약보합세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맥, 수수, 소맥피가격 등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작년에 새로 개발·수입된 바 있는 루핀시드와 타피오카는 수출여력 감소와 가격상승으로인해 타곡류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루핀시드는 원래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교역물량이 많지 않아서 호주산 루핀시드에 대한 일본의 독점계약으로인해 구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있고, 타피오카 역시 최근 Non-EEC지역에 대한 1:1보너스 프로그램이 주효하여 재고물량이 소진되고 가격 또한 급등하여 구매가 용이치 못한 실정이다.

4월 22일 현재 태국산 타피오카 하드 펠렛의

## 2. 대두 시세동향

단위 : US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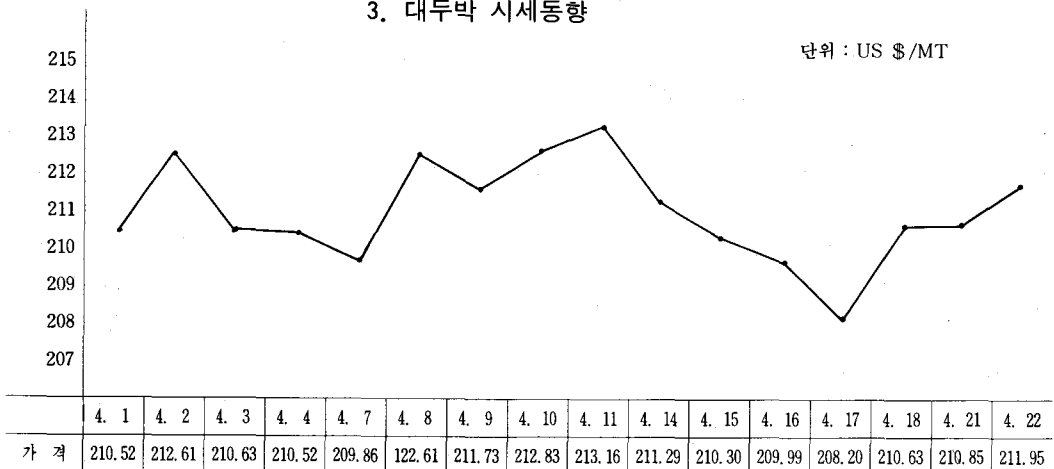
EC수출가격은 FOB기준 123불수준이고, Non-EEC 지역의 수출가격은 FOB 92불 수준이 되고 있다.

한편 물량부족으로인해 강세현상이 두드러졌던 중공산 수수시세는 최근 C&F 95불까지 반락 현상을 보였고, 미산은 여전히 근월도 물량부족으로인해 근월도 시세가 형성되지 않는 채 7월

선적기준 수수시세는 102불선이 되고있다. 또한 옥수수가격에 힘입어 아르헨티나산 수수시세 역시 크게 떨어져 최근에는 C&F 95불 수준이 되고 있다. 그밖에도 호주산 수수시세는 C&F 기준 104불수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수시세는 옥수수, 사료용 소맥 등의 가격하락에 힘입어 약보합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 3. 대두박 시세동향

단위 : US \$/MT



있다.

### ● 사료용소맥 큰폭의 하락

최근 가장 큰 가격하락을 나타내며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료용 소맥은 최근 거듭된 가격하락으로 인해 C&F 95불선까지 크게 떨어졌다. 특히 이와같은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EC산 소맥가격으로 호주, 캐나다와 함께 삼파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호주, EC, 캐나다의 소맥재고는 불투명한 상태로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기타곡물중 가장 높은 가격경쟁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곡물중 호밀은 EEC산, 캐나다산의 경우 C&F톤당 95불선을 보여주고 있고, 채종박은 인도산 101불, 중공 98불, 칠레 118불, 캐나다 165불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밖에도 아르헨티나, 중공산 해바라기박이 C&F톤당 108불, 소맥되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산이 87불, 아르헨티나, 칠레산이 85불로 다소 떨어지는 추세이다. 그밖에도 캐나다산 GSP는 큰 가격변동 없이 C&F 82불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기타곡물시세는 캐나다의 수출 기본가격 (Initial Price)의 하락 및 미산 옥수수시세의 약세 등으로인해 약세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

## 5 월 분과위원회 개최

채란·육계·종계부화 분과위원회는 5월 21일(수) 오후 1시부터 개최되는 전국 순회 양계강습회를 마친 후, 동장소(상공회의실 중회의실 2층)에서 개최합니다.